

글로벌 역량과 사고 균형성이 SDGs 연계 ESG활동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성광* 최미리** 곽준식***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

오늘날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전략을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역량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이하 사고균형성), SDGs 연계 ESG 인식(이하 ESG 인식)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ESG 인식 확대 전략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글로벌 역량 중 도전성과 수용성은 사고 균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고 균형성은 ESG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역량 중 도전성과 수용성은 ESG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도전성, 수용성, 사고 균형성 및 ESG 인식의 구조적 관계는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 수용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고 균형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전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 도전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어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ESG, 글로벌 역량, 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

이 논문은 2023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주저자: 정성광/동아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조교수/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E-mail: jsg4617@dau.ac.kr)
** 공동연구자: 최미리/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강사/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E-mail: miri103@naver.com)
*** 교신저자: 곽준식/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E-mail: no1marketer@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 철강 등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술혁신 및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매년마다 UN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UN SDGBI)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등을 지표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친환경, 기후변화, 사회공헌활동 등이 미래 사회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여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ESG가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ESG를 통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기 투자여부를 결정한다(Escrig-Olmedo, Fernández-Izquierdo, Ferrero-Ferrero, Rivera-Lirio, & Muñoz-Torres, 2019).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역량확대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SDGs와 연계한 ESG 활동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제시한 17가지의 목표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이다. 각 목표는 빈곤 감소, 교육 접근성 향상, 식량 보안, 기후 변화 대응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SDGs의 목적은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ESG는 SDGs의 핵심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이 ESG 원칙을 준수하고 ESG 관련 지표를 관리하면 이는 SDGs성적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빈곤 감소, 교육, 식량, 기후 변화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결되어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성과 역시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SDGs와 ESG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과 SDGs와 연계된 ESG인식을 강화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SDGs 연계 ESG 인식의 효과는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령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보다 물리적인 매장 규모가 작거나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은 오프라인이라는 현실의 공간에서 대면활동 및 대면 유통을 통해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중심의 기업보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거나 친환경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및 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의 기업의 경영활동은 오프라인 중심 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전략을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역량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확보와 SDGs와 연계된 ESG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SDGs 연계된 ESG 인식 확대 전략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이 글로벌 사고 균형성, SDGs 연계 ESG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의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이 글로벌 사고 균형성을 매개로 하여 SDGs 연계 ESG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의 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 및 SDGs 연계 ESG인식의 전반적인 관계는 기업의 유형(오프라인, 온라인)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SDGs 연계 ESG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SDGs와 연계된 ESG

SDGs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뜻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어로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제이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과 함께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김은경, 장보원 2022).

유엔의 SDGs 17개 목표는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3. 보건 증진,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위생, 7. 에너지 보급,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

시 구축,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13. 기후변화대응, 14. 해양자원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16.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한다(환경부 2019).

SDGs는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향후 100년 이내 지구의 환경, 자원, 식량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무분별한 경제성장에 의한 현상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인류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출판하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구성원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해야 할 인류 최대의 공동 목표로 결정되었다(United Nations 2015).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각종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경제,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사회, 환경,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환경부 2019). 한편 ESG는 현재와 미래의 공생을 위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로(Galbreath, 2013), 미래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여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ESG 평가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기업에 환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단기, 장기 투자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Escrib-Olmedo et al. 2019). 결국 ESG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 활동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구현이 가능하다.

기업의 ESG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건전한 거버넌스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ESG 정도가 낮은 기업과 ESG 정도가 높은 기업을 비교할 경우 ESG가 높은 기업이 지속가능하며 성장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기업이 ESG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ESG란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주요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Giese, Lee, Melas, Nagy, & Nishikawa, 2019).

<표 1> SDGs와 연관된 ESG

ESG	SDGs
환경 (Environmental)	6. 깨끗한 위생 7. 에너지 보급 9. 인프라 구축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사회 (Social)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위생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 10. 불평등 감소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16.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 구축
지배구조 (Governance)	5. 성평등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13. 기후변화와 대응 16.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출처: Markopoulos & Barbara(2022)

먼저 E(environmental)는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환경 지표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환경 지표에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와 삼림파괴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S(Social)는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라고도 불린다. G(Governance)는 기업의 이사진, 경영진에 해당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Markopoulos & Barbara(2022)가 제시한 SDGs에 연계된 ESG 분류는 <표 1>과 같다.

2. 글로벌 기업역량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업역량이 기업의 SDGs 연계 ESG 인식(이하 ESG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SDGs와 ESG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략(globalization)이란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단일한 구조적 프레임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의미한다(Doku & Asante 2011).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보의 이동은 국가 간의 물리적, 지리적으로 제약받지 않는다(Ohmae, 2006).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기업은 국내에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다(Stofkova & Sukalova 2020). 기업들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는 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Rosen(2000)은 글로벌 역량 갖추기 위해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Leslie et al.(2002) 연구에서는 지식집약적인 사업에서는 핵심 비즈니스 지식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지식과 함께 문화적 관점에서의 적응 및

수용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에 대해 기업의 수용성(Acceptance)을 중심으로 알아보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의 중요 요소로 도전성(Challenge)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도전성은 이질적인 문화나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영성과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노상충, 정홍식, 서용원 2012).

한편 Jeannet(2007)은 경영 및 마케팅 담당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평가 및 분석하여 최적의 제품화, 유통경로 도출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사고의 균형성(Thinking Balance)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vy, Beechler, Taylor & Boyacigiller(2007)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학적, 지리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과 지역적 대응 간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기업의 글로벌 사고 균형성(이하 사고균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Dragoni et al.(2014)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영 및 마케팅 담당자의 사고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전 및 목표 실행을 위한 경영 및 마케팅 프로세스 수립에 해당하는 사고 균형성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도전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경험에 열려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도전적인 사고를 실시할 경우 상상력이 풍부하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능숙할 수 있다(Ohly & Fritz 2010). 이와 같은 도전성은 사고의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용성은 주어진 정보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수용성으로 사고할 경우 주어진 근거나 사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고한다(Rohner 2021). 이러한 수용성은 안정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의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설 1. 기업의 도전성은 사고 균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의 수용성은 사고 균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고 균형성은 ESG인식과 긍정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고를 균형적으로 할 경우 자원을 균형적으로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실시한다(West, Haider, Stålhammar & Woroniecki, 2020). 또한 균형잡힌 사고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해당 기업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글로벌 역량 중 도전성은 ESG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도전적인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도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 및 자원 사용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Cruz & Matos 2023).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실시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도입하면서 기업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수용성은 새로운 환경 정책과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탄소절감을 위한 경영환경을 유도할 것이다. 기업의 수용성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Gao & Hafsi 2023). 이를 통해 유연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 글로벌 시장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고 균형성과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이 ESG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3. 기업의 사고 균형성은 ESG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업의 도전성은 ESG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기업의 수용성은 ESG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의 유형

국내 시장 대부분의 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24년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시장 규모를 온라인 시장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유통형태를 결합하는 현상은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유통채널의 결합으로 발전되고 있다(Bell, Gallino & Moreno 2018). 결국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특정 기업의 경우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 및 유통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기업의 본사 및 창고의 경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럴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지만 온라인의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소비자와의 대면과정에서 오프라인을 주로 활용하는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실시하고자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활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는가는 해당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기업의 경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마케팅, 거래 등 대부분의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Lestari, Gunawan & Yulianci 2020).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공간 부담이 낮아 운영비용이 저렴하다.

반면에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은 실제 매장, 사무실, 공장 등 물리적인 공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Moon & Armstrong 2020). 또한 주로 매장 방문, 전화, 직접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이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에 따른 기업의 유형에 의해 글로벌 역량인 도전성과 수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오프라인, 온라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6-1. 기업의 도전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2. 기업의 수용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중심의 기업 또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ESG인식에 대한 성과는 달라진다. 가령 온라인 중심의 기업은 물리적인 매장이나 사무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빠른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Bican & Brem 2020).

반면에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장에 중점을 두며,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SDGs와 ESG에 대응이 온라인 중심의 기업보다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의 기업보다는 지역적으로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탄소 절감과 같은 환경 관련 부분은 제조공장 및 사무실 등의 오프라인에서의 변화 및 혁신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Chen, Fujii & Sun 2022).

이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에 따른 기업의 유형에 의해 글로벌 사고 수용성과 기업의 글로벌 역량인 도전성과 수용성이 ESG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사고 수용성과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이 ESG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오프라인, 온라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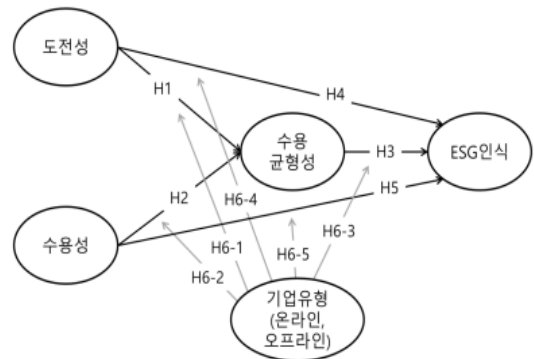
가설 6-3. 기업의 사고 균형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4. 기업의 도전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5. 기업의 수용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도전성, 수용성, 사고 균형성, ESG인식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도전성, 수용성, 사고 균형성, ESG인식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2.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항목

기업의 글로벌 역량의 경우 노상충, 정홍식, 서용원(2012), Lawthong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전성, 수용성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 먼저 도전성은 개인적인 도전적 성향을 의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 문항의 경우 해외 혹은

낮선 장소에서 어려움에 직면해도 끝까지 목적을 성취하는 정도, 국내외 관계없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면 수행하려고 하는 정도, 글로벌 무대를 위협보다는 기회로 인지하는 정도 등 3개 질문을 7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용성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문항의 경우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있는 정도, 윤리와 도덕은 나라, 시대,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정도, 외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등 4개 질문을 7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고 균형성의 경우 역학적, 지리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과 지역적 대응 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의 경우 이효미, 김명소, 한영석(2011), Kefalas & Weatherly (1999)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 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도, 국제적 이슈(FTA, 환율 등)에 대해 국내 입장 뿐 아니라 해외 국가도 고려하는 정도, 특정 현상에 대해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정도 등 3개 질문을 7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SDGs와 연계한 ESG 인식의 경우 SDGs와 연계한 환경, 사회, 지배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Markopoulos & Barbara(2022)의 연구와 한국거래소(2021)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의 진단항목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Markopoulos & Barbara(2022)에서 제시한 SDGs별 ESG와 한국거래소(2021)의 ESG 진단항목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별로 동일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문항은 기업의 에너지 및 사용 등의 환경, 기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정도(환경), 기업의 인권, 성희롱 및 성차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사회), 기업의 윤리, 부패방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지배구조)의 질문을 7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형태는 기업의 유통과정 중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비중이 높은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측정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해 의미차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s)로 7점을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귀하가 생각하기에 귀사의 유통 및 판매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수집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고찰과 실증적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검증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글로벌 기업역량(도전성, 수용성)과 사고 균형성,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글로벌 기업역량과 ESG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1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사전 교육을 받은 면접관의 선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한편 스크리닝(Screening)은 현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총 6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모든 설문지를 회수했으나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는 6부를 제외한 604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에게는 답례로 소정의 사례품이 제공되었다.

IV. 연구방법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299	49.5	학력	고졸 이하	147	24.3
	여성	305	50.5		대졸	155	25.7
	전체	604	100		석사	133	22
연령	20대	148	24.5	수입	박사	169	28
	30대	146	24.2		전체	604	100
	40대	163	27		월200미만	103	17.1
	50대 이상	147	24.3		200~300	120	19.9
근무년수	전체	604	100	직책	300~400	144	23.8
	2년 이하	105	17.4		400~500	131	21.7
	3~5년	144	23.8		500 이상	106	17.5
	6~10년	113	18.7		전체	604	100
	10~15년	126	20.9		사원	249	41.2
	16년 이상	116	19.2		중간경영자	194	32.1
	전체	604	100		대표 및 임원	161	26.7
				전체	604	100	

본 연구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99명(49.5%), 여성의 경우 305명(50.5%)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는 20대의 경우 148명(24.5%), 30대의 경우 146명(24.2%), 40대의 경우 163명(27.0%), 50대 이상의 경우 147명(24.3%)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로는 2년 이하의 경우 105명(17.4%), 3~5년의 경우 144명(23.8%), 6~10년의 경우 113명(18.7%), 10~15년의 경우 126명(20.9%), 16년 이상의 경우 116명(19.2%)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147명(24.3%), 대졸의 경우 155명(25.7%), 석사의 경우 133명(22.0%), 박사의 경우 169명(28.0%)으로 나타났다. 수입으로는 월200미만의 경우 103명(17.1%),

200~300의 경우 120명(19.9%), 300~400의 경우 144명(23.8%), 400~500의 경우 131명(21.7%), 500 이상의 경우 106명(17.5%)으로 나타났다. 직책으로는 사원(사원, 대리급)의 경우 249명(41.2%), 중간경영자(과장, 팀장, 부장, 실장 등)의 경우 194명(32.1%), 대표 및 임원(상무, 이사, 전무, 대표 등)의 경우 161명(26.7%)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stimate	C.R.	P	개념신뢰도	AVE
도전성2	1.000			.942	.713
도전성3	.996	47.076	.000		
도전성1	.989	45.705	.000		
수용성1	1.000			.890	.532
수용성3	.929	26.055	.000		
수용성2	.895	25.919	.000		
사고균형3	1.000			.933	.679
사고균형1	.997	50.799	.000		
사고균형2	.956	46.801	.000		
ESG3	1.000			.881	.507
ESG2	.975	27.658	.000		
ESG1	.962	27.679	.000		

CMIN= 72.083(df=48, p=0.000), GFI= .980, AGFI= .968
CFI= .996, NFI= .989, TLI= .995, RMSEA= .029

본 연구의 연구 개념인 도전성, 수용성, 사고 균형성, ESG인식은 반영적 지표(reflective indicato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개념의 측정문항이 본 연구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에 대해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의 결과 전반적 적합도의 평가기준에 대해

만족시켰다. 전반적인 모델의 적합도는 $X^2 = 72.083$ ($df=48, p=0.000$), $GFI=.980$, $AGFI=.968$ $CFI=.996$, $NFI=.989$, $TLI=.995$, $RMSEA=.029$ 로 나타났다. 각 구성요소의 요인부하량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 균형성, 도전성, ESG, 수용성의 측정 항목들이 구성 개념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척도가 연구 단위를 대표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와 AVE(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분석하였다. 전략적사고, 도전성, ESG, 수용성의 개념신뢰도는 0.8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분산 추출은 .507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의 경우 권장 기준보다 높아 해당 연구단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1998).

다음으로, 유사한 두 가지의 연구개념들 간 명확한 구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각 평균분산추출 값이

해당 값의 가로축과 세로축 상관 계수의 제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한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ESG	도전성	수용성	사고 균형성
ESG인식	.532			
도전성	.075	.713		
수용성	.028	.004	.507	
사고균형성	.078	.260	.017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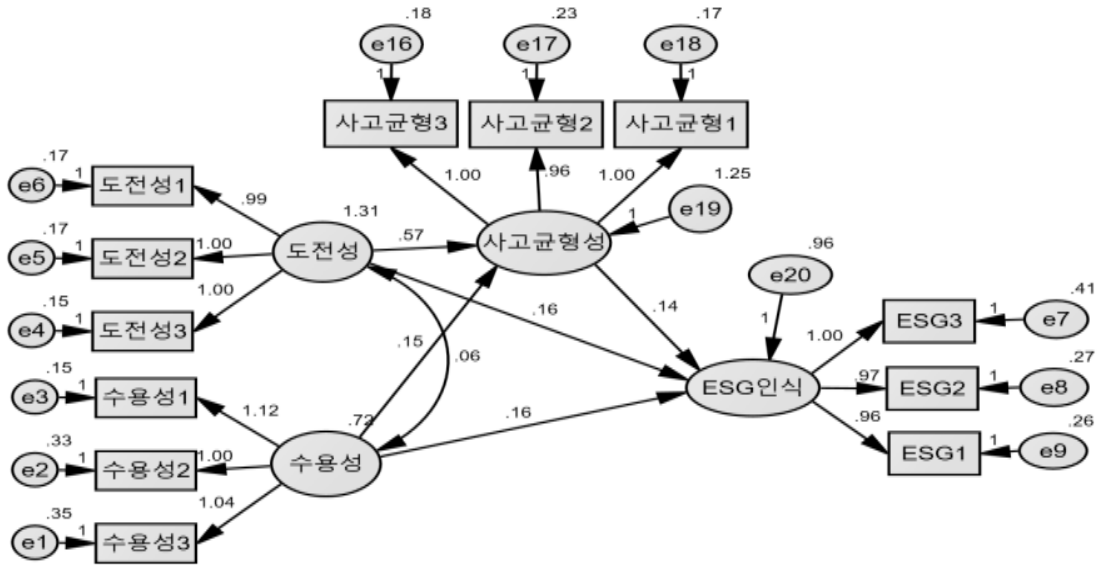
대각선 값은 AVE값을 의미하며, 나머지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의미함.

<표 4>와 같이 본 연구에 대한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이 해당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대한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표 5> 가설검정 결과(글로벌 기업역량 - 사고 균형성 - ESG인식)

					β	S.E.	C.R.	P	가설검정결과
H1	도전성	→	사고균형성	+	.574	.043	13.354	.000	지지
H2	수용성	→	사고균형성	+	.153	.058	2.630	.009	지지
H3	사고균형성	→	ESG인식	+	.136	.039	3.481	.000	지지
H4	도전성	→	ESG인식	+	.163	.044	3.660	.000	지지
H5	수용성	→	ESG인식	+	.163	.053	3.084	.002	지지

CMIN= 72.083($df=48, p=0.000$), $GFI=.980$, $AGFI=.968$ $CFI=.996$, $NFI=.989$, $TLI=.995$, $RMSEA=.029$



<그림 2> 구조모형방정식 분석결과(글로벌 기업역량 - 사고 균형성 - ESG인식)

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설정 후 AMOS 25.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자료와 모델간 적합도는 $\chi^2 = 72.083(df=48, p=0.000)$, GFI= .980, AGFI= .968 CFI= .996, NFI= .989, TLI= .995, RMSEA= .029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 대한 제시모형이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도전성은 사고 균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57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p=.001$) 가설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용성은 사고 균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15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p=.000$) 가설2는 지지되었다.

셋째로 기업의 사고 균형성은 ESG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13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p=.002$) 가설3은 지지되었다.

넷째로, 기업의 도전성은 ESG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16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p=.003$) 가설4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용성은 ESG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16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p=.004$) 가설 5는 지지되었다.

4. 조절효과 검증

글로벌 기업역량과 기업의 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검정을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SPSS 27.0을 활용한 PROCESS MACRO v4.0의 조절효과분석모델인 Model 1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전략적사고, 도전성, ESG, 수용성에 대한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PROCESS MACRO v4.0의 조절효과분석모

델인 Model 1의 상호작용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의차별적으로 이루어진 7점 척도와 곱해진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였다.

<표 6> 사고균형성에 대한 도전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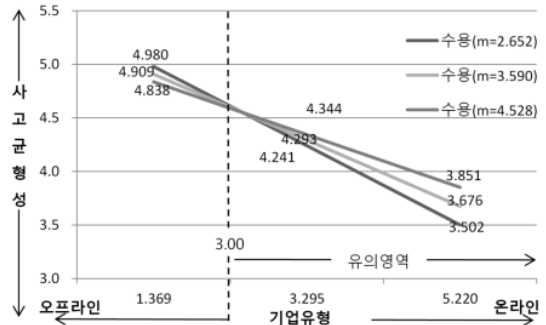
	β	S.E	t	LLCI	ULCI
상수	2.905	.328	8.850	2.260	3.549
A. 도전	.508	.074	6.839	.362	.654
B. 유형	-.244	.085	-2.882	-.410	-.078
A * B	.008	.021	.362	-.033	.049
회귀모델	$R^2=.385, F=125.081, p=.000$				

가설 6-1에서는 기업의 도전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6>과 같이 도전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효과 계수(β)는 0.008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구간의 상하한은 -.033에서 .049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전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도전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1은 기각되었다.

<표 7> 사고균형성에 대한 수용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효과

	β	S.E	t	LLCI	ULCI
상수	5.953	.411	14.498	5.146	6.759
A. 수용	-.169	.114	-1.483	-.392	.055
B. 유형	-.564	.106	-5.327	-.772	-.356
A * B	.068	.028	2.449	.013	.122
회귀 모델	$R^2=.201, F=50.250, p=0.000$				



<그림 3> 사고균형성에 대한 수용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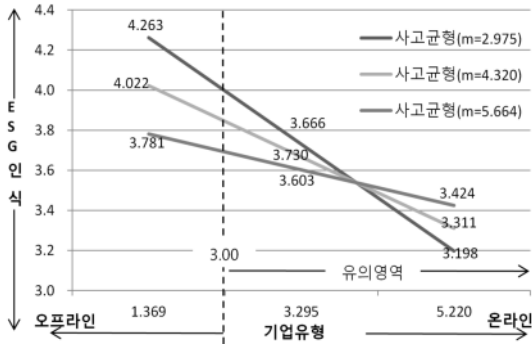
가설 6-2에서는 기업의 수용성이 글로벌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7>과 같이 수용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효과 계수(β)는 .06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상하한은 .013에서 .122로 모두 양수가 나타났으며, 긍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의 수용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2는 지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3>과 같이 Johnson & Neyman(1936)이 제안한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을 통해 수용성과 기업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유형의 값(μ)이 2.99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수용성이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ESG인식에 대한 사고 균형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효과

	β	S.E	t	LLCI	ULCI
상수	5.452	.310	17.616	4.844	6.060
A. 사고 균형성	-.273	.066	-4.117	-.403	-.143
B. 유형	-.480	.076	-6.326	-.629	-.331
A * B	.068	.019	3.640	.032	.105
회귀모델	$R^2=.143, F=33.370, p=.000$				



<그림 4> ESG인식에 대한 사고 균형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6-3에서는 기업의 사고 균형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8>과 같이 사고 균형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 효과의 계수(β)는 .06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상하한은 .032에서 .105로 모두 양수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의 사고 균형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3은 지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4>와 같이 Johnson & Neyman(1936)이 제안한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을 통해 사고 균형성과 기업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유형의 값(μ)이 3.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사고 균형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ESG인식에 대한 도전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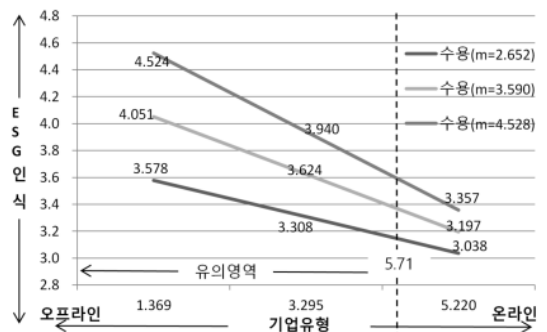
	β	S.E	t	LLCI	ULCI
상수	4.149	.322	12.887	3.517	4.781
A. 도전	.013	.073	.179	-.130	.156
B. 유형	-.247	.083	-2.982	-.410	-.084
A * B	.015	.020	.750	-.025	.056
회귀모델	$R^2 = .123, F = 28.092, p = .000$				

가설 6-4에서는 기업의 도전성이 ESG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9>와 같이 도전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 효과의 계수(β)는 .015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구간의 상하한은 -.025에서 .056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전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도전성이 ESG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4는 기각되었다.

<표 10> ESG인식에 대한 수용성과 기업유형의 상호 작용효과

	β	S.E	t	LLCI	ULCI
상수	2.116	.337	6.282	1.454	2.777
A. 수용	.624	.093	6.679	.440	.807
B. 유형	.090	.087	1.037	-.081	.261
A * B	-.087	.023	-3.815	-.132	-.042
회귀모델	$R^2 = .204, F = 51.137, p = .000$				



<그림 5> ESG인식에 대한 수용성과 기업유형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6-5에서는 기업의 수용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10>과 같이 수용성과 유통형태의 상호작용 효과의 계수(β)는 -.087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상하한은 -.132에서 -.042로 모두 음수가 나타났

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수용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6-5는 지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5>와 같이 Johnson & Neyman(1936)이 제안한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을 통해 수용성과 기업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유형의 값(μ)이 5.71보다 낮은 사람들에게서 수용성이 ESG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조절효과 가설검정 결과

		가설검정결과
H6-1	도전성 → 사고균형성	기각
H6-2	수용성 → 사고균형성	지지
H6-3	사고균형성 → ESG 인식	지지
H6-4	도전성 → ESG 인식	기각
H6-5	수용성 → ESG 인식	지지

한편 기업의 유형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른 조절효과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용성이 사고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6-2, 사고균형성이 ESG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6-3, 수용성이 ESG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6-5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지지되었다.

하지만 도전성이 사고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6-1, 도전성이 ESG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6-4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기각되었다.

V.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글로벌 전략 중 도전성과 수용성은 글로벌 사고 균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글로벌 사고 균형성은 SDGs와 연계된 ESG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전략 중 도전성과 수용성은 SDGs와 연계된 ESG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은 SDGs와 연계된 ESG 인식의 구조적 관계는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성이 글로벌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 수용성이 SDGs 연계 ESG인식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사고 균형성이 SDGs 연계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명등 분석을 통한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기업의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전성이 전략적사고에 미치는 영향, 도전성이 SDGs 연계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로 SDGs와 연계된 ESG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업을 점검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지표 중 SDGs와 연계된 ESG를 사용하여 기업의 성과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의 역량에 대해 글로벌 역량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는 최근 시장의 국제화와 더불어 국내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

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글로벌 역량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과 SDGs 연계 ESG 인식의 유의미한 관계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경쟁우위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속에서 기업의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과 SDGs 연계 ESG 인식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혔다는 것은 기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SDGs 연계 ESG 인식의 관계에서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도전성,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과 SDGs 연계 ESG 인식의 관계에 대한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선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성이 글로벌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 수용성이 SDGs 연계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사고 균형성이 SDGs 연계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 SDGs 연계 ESG 인식의 전반적인 관계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이 온라인 중심의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인 경우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대면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이를 통해 보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균형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그 결과 SDGs 연계 ESG 인식의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기업인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 대면의 기회가 적음에 따라 수용성, 글로벌 사고 균형성, SDGs 연계 ESG 인식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전성이 글로벌 사고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성이 SDGs 연계 ESG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과 온라인 중심의 기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중심의 기업 및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 모두 기업의 생존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전략수립 및 SDGs 연계 ESG의 인식확대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 및 업태에 따른 글로벌 기업역량과 SDGs 연계 ESG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업종과 업태에 따라 기업의 문화, 구조는 다를 것이며 이를 통한 글로벌 기업역량과 SDGs 연계 ESG의 관계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역량과 SDGs 연계 ESG의 관계에 대한 차별적인 시사점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기업 구성원의 직위, 근무년수, 수업, 학력에 따른 글로벌 기업역량과 SDGs 연계 ESG의 관계에 대한 차별적인 시사점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영 (2022). 대만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한-대만 협력, *대만연구*, (21), 9-30.
- 김은경, 장보원 (2022).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내재화: SDGs 정책 도입 및 확산 요인 분석, *평화연구*, 30(2), 131-166.
- 노상충, 정홍식, 서용원 (2012). 글로벌 역량 척도 (GCS)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801-831.
- 이효미, 김명소, 한영석 (2011). 글로벌 마인드 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지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3), 493-521.
-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KRX 한국거래소
- 환경부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Bell, David R., Santiago Gallino, & Antonio Moreno(2018), "Offline Showrooms in Omnichannel Retail: Demand & Operational Benefits." *Management Science*, 64(4), 1629-1651.
- Bican, P. M., & Brem, A.(2020), "Digital Business Model,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Entrepreneurship: Is There A Sustainable "Digital"?" *Sustainability*, 12(13), 5239.
- Chen, W., Fujii, M., & Sun, L.(2022), "Feasibility Analysis of Energy System Optimization for A Typical Manufacturing Factory with Environmental & Economic Assessment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66(15), 132887.
- Cruz, C. A., & Matos, F.(2023), "ESG Maturity: A Software Framework for The Challenges of ESG Data in Investment," *Sustainability*, 15(3), 2610.
- Doku, Paul Narh, & Kwaku Opong Asante (2011), "Identity: Globalization, culture &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Human Sciences*, 8(2), 294-301.
- Dragoni, L., Oh, I. S., Tesluk, P. E., Moore, O. A., VanKatwyk, P., & Hazucha, J.(2014), "Developing leaders' strategic thinking through global work experience: The moderating role of cultur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9(5), 867.
- Escrig-Olmedo, E., Fernández-Izquierdo, M. Á., Ferrero-Ferrero, I., Rivera-Lirio, J. M., & Muñoz-Torres, M. J.(2019), "Rating The Raters: Evaluating How ESG Rating Agencies Integrate Sustainability Principles," *Sustainability*, 11(3), 915.
- Fornell, Claes, & David F. Larcker(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lbreath, J.(2013), "ESG in Focus: The Australian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8, 529-541.
- Gao, Y., Nie, Y., & Hafsi, T.(2023), "Not All Stakeholders are Equ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ariability &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Business Ethics, the Environment & Responsibility*, 32(4), 1389-1410.
- Giese, G., Lee, L. E., Melas, D., Nagy, Z., & Nishikawa, L.(2019), "Foundations of ESG Investing: How ESG Affects Equity Valuation, Risk, & Performance,"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45(5), 69-83.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87),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New York: McMillan.
- Jeannet, Jean-Pierre(2007), "Complexity in Global Business Strategies: The Cumulative Impact of the Crisis of Choices." *Managing Complexity*

- in *Global Organizations*, 125.
- Kefalas, A. G., & Weatherly, E. W.(1999), "Global Mindset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 Elsewhere: Are we growing a globally minded workforce?," *Southwest Review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25.
- Lawthong N.(2003). "A development of the global-mindset scale in Thai socio-cultural context," *Journal of Institutional Research Southeast Asia*, 1(2), 57-70.
- Leslie, J. B., Dalton, M. A., Ernst, C., & Deal, J. J.(2002), Managerial effectiveness in a global context,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 Lestari, P. A. S., Gunawan, G., & Yulianci, S.(2020), "Effectiveness of Online Lectures Using Digital Platform During the Pandemi Covid-19," *Indonesian Journal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1(3), 107-115.
- Levy, O., Beechler, S., Taylor, S., & Boyacigiller, N. A.(2007),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Global Mindset': Managerial Cognition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2), 231-258.
- Markopoulos, E., & Barbara Ramonda, M.(2022), "An ESG-SDGs Alignment and Execution Model Based on The Ocean Strategies Transition in Emerging markets," *In Creativ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31, 93-103.
- Markopoulos, E., & Barbara Ramonda, M.(2022), "An ESG-SDGs Alignment and Execution Model Based on The Ocean Strategies Transition in Emerging markets," *In Creativ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31, 93-103.
- Moon, Y., & Armstrong, D. J.(2020), "Service Quality Factors Affecting Customer Attitudes in Online-to-Offline Commerce," *Information Systems and e-Business Management*, 18(1), 1-34.
- Ohly, S., & Fritz, C.(2010), "Work Characteristics, Challenge Appraisal, Creativity, and Proactive Behavior: A Multi Level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4), 543-565.
- Ohmae, Kenichi(2001) "How to Invite Prosperity from The Global Economy into A Region,"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33-43.
- Piotrowicz, Wojciech, & Richard Cuthbertson. (2014)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Information Technology in Retail: Toward Omnichannel Retai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18(4), 5-15.
- Rohner, R. P.(2021).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IPARTheory) and Evidence,"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Culture*, 6(1), 4.
- Rosen, R.H.(2000), "What makes a globally literate leader?," *Chief Executive*, 46-48.
- Stofkova, Zuzana, and Viera Sukalova(2020),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Globalization period," *Sustainability*, 12(18), 7681.
- West, S., Haider, L. J., "Stålhammar, S., & Woroniecki, S.(2020), A Relational Turn for Sustainability Science? Relational Thinking, Leverage Points and Transformations," *Ecosystems and People*, 16(1), 304-325.

투고일자: 2023. 12. 31.

심사일자: 2024. 1. 23.

게재확정일자: 2024. 2. 13.

Impact of Global Capabilities and Balanced Thinking on SDGs and ESG Awarenes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ype of Corporate

Sunggwang Jung

Miri Choi

Junsik Kwak

Donga Universi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ngseo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rporate capabilities and promoting SDGs and ESG awareness within the global market. In addition, it investigates how a company's strengthening of global capabilities and strategies for expanding SDGs and ESG awareness differ based on its corporate typ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in a corporate's balanced thinking approach, both challenge and acceptanc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alanced thinking. Furthermore, balanced think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DGs and ESG awareness. Challenge and acceptance within a corporate's balanced thinking approach also positively impacted SDGs and ESG awareness. In additi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DGs and ESG awareness, pertaining to elements such as challenge, acceptance, and balance in thinking, was found to vary partially depending on the type of corporation. The impact of acceptance on balanced thinking, the influence of acceptance on SDGs and ESG awareness, and the impact of balanced thinking on SDGs and ESG awareness were found to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corporate.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mpact of challenge on balanced thinking or the impact of challenge on SDGs and ESG awareness based on corporate type.

Keywords: SDGs, ESG, global capabilities, challenge, acceptance